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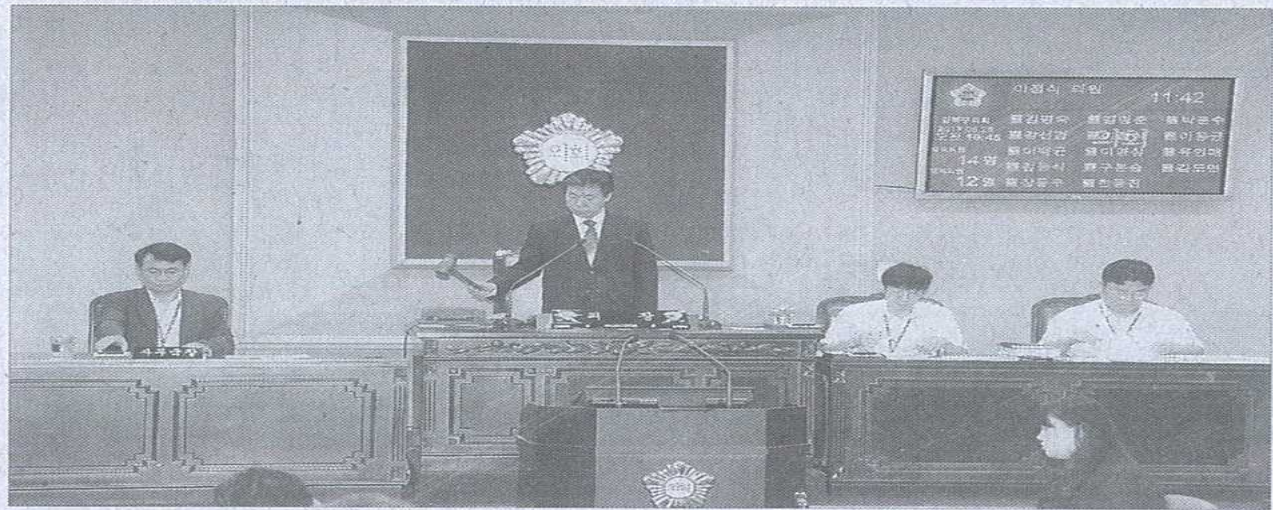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7년 9월 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28일 열린 제20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강북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8일까지 개최

12일간 일정...추경예산·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 처리하기로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박문수 의장은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을지연습의 노고를 격려하고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에 대해 구민들의 식품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고 “강북지역 교통난을 해소해줄 경전철이 9월2일 개통됨에 따라 강북구가 북한산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북한의 마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에 의원은 ‘경전철 개통 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의 필요성’, 김도연 의원은 ‘수유1동 자치회관 유아교육프로그램 부재’와 관련하여 제안했으며, 이정식 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동북일보 4면

## 강북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최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박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가우며, 북한의 강한 협박 속에 3박 4일간 진행된 을지연습에 군·경,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으로 인해 불거지는 한반도 위기설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구민들의 식품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강북지역 교통난을 해소해줄 경전철이 9월 2일 개통됨에 따라 강북구가 북한산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있을 임시회에서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 당부드리며, 다가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다 함께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8월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북한의 마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였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에 의원은 ‘경전철 개통 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의 필요성’, 김도연 의원은 ‘수유1동 자치회관 유아교육프로그램 부재’와 관련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정식 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 강북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박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북지역 교통난을 해소해줄 경전철이 9월 2일 개통됨에 따라 강북구가 북한산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 바라고 오늘부터 있을 임시회에서 추경안 등 안건 심의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했다.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북한의 마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인애 의원은 ‘경전철 개통 관련 종합대책 수립 등의 필요성’, 김도연 의원은 ‘수유1동 자치회관 유아교육프로그램 부재’와 관련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정식 의원은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 강북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최

## 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8월 28일부터~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7년도 제2회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북한의 마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8일부터~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이 예정돼 있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유영일 기자